

불법 스포츠 도박에 리그 존립마저 위태로운 대만야구



9 대만야구의 몰락

야구는 대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다. 1990년 대만프로야구리그(CPBL)가 4개 팀으로 출범한 뒤 1997년에는 양대 리그-11개 구단으로 확대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1991년 관중 100만명을 돌파했고, 1995년 164만명으로 정점을 찍었다. 그러나 1996년 평균 관중이 5000명 밑으로 내려가더니 1997년에는 총 관중 68만5000명·평균 관중 2000명 수준으로 급감했다. 2개의 리그가 갈등을 빚은 탓에 팬층이 분열된 탓도 있었지만, 승부조작 사건이 잇달아 터지면서 팬들의 신뢰를 잃은 것이 결정타였다. 잠시 흥풍의 기운을 보이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승부조작에 발목을 잡힌 결과 현재 CPBL은 4개 구단으로까지 축소됐다. 불법 스포츠 도박의 직격탄을 맞아 리그의 존립마저 위태로워진 것이다.

검은 타이거즈·검은 독수리·흑사회 사건 등 승부조작 사건 잇따라...야구 흥행 열기 찬물 한때 11개 구단서 현재 4개 구단 리그로 축소



대만프로야구는 1997년 11개 팀이 양대리그를 운영할 만큼 최고 인기를 누렸지만, 1995년 이후 연속해서 터진 승부조작 사건으로 인해 팬들의 신뢰를 잃었다. 현재는 4개 구단으로 축소돼 리그의 존립마저 위태로운 실정이다. 2013년 안방 타이중에서 열린 아시아시리즈에서 호주 캔버라 캐발리에 패한 대만 EDA 라이노스 선수들이 쓸쓸한 표정으로 그라운드를 빠져나가고 있다.

●승부조작의 온상 된 대만프로야구

종의 협박과 돈의 유혹으로 무장한 폭력조직이 개입된 승부조작이 대만프로야구의 근간을 위협했다. 1995년 10월 14일 삼상 타이거즈의 투수가 고의로 볼을 낚발해 팀을 패배로 몰고 간 소위 '검은 타이거즈' 사건이 발단이였다. 삼상 타이거즈는 1990년 CPBL 출범 멤버였지만, 이 사건 이후 쇠락의 길을 걷다가 1999년 결국 해체됐다.

골이 '검은 독수리' 사건이 터졌다. 시보 이글스는 1997년 전반기 우승팀이었는데, 선수들 상당수가 조직폭력배가 주도하는 불법도박에 연루돼 승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된 선수가 너무 많아 1998년 팀 해체 수순을 밟았다. 또 1997년 대만프로야구 최악의 스캔들로 꼽히는 '흑사회' 사건마저 터지며 회복불능의 단계로 치달았다. 폭력조직 흑사회가 승부조작을 협력하기 위해 현지 감독을 칼로 찌르고, 선수들을 납치한 사건이다.

이후 대만프로야구는 2003년 6개 팀이 뭉쳐 단일리그로 통합하고, 국제대회에서 성적을 내며 재기를 꿈꿨다. 그러나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거의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승부조작 사건이 터지자, 팬들의 마음은 돌아섰다. 그 여파로 2007년에는 중신 웨일즈가 해체됐고, 2008년에는 디미디어 티렉스가 법원의 강제해체 명령을 받았다.

2008년 사건은 폭력조직이 일부 선수들과 결탁해 음모를 꾸민 차원을 넘어 야구단을 장악

하다시피한 뒤 승부조작을 일삼은 것이라 파악이 더 컸다. 평균 관중은 아예 1000명 아래로 떨어졌고, 말짱한 야구단마저 경영이 악화됐다. 이는 대만야구의 국제경쟁력 저하로 이어졌고, 다시 인기하락을 부채질하는 악순환을 낳았다.

●무엇이 선수들을 유혹에 빠뜨렸나?

대만프로야구가 자꾸 승부조작의 늪에 빠지는 결정적 이유는 선수들과 폭력조직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지점이 많기 때문이다. 대만프로야구의 최고 연봉 선수는 우리 돈 2억~3억 원을 받는다. 평균 연봉은 7000만원 안팎이고, 그 절반의 연봉을 받는 선수들도 상당수다. 대만프로야구의 모기업은 글로벌 기업 위주의 한국과 달리 중소기업들인 만큼 철저히 이익 창출을 목표로 구단을 운영해야 하는데, 수익구조가 악화된 현 실정에선 선수 연봉도 오르기 어렵다. 이 때문에 폭력조직이 대만프로야구에 기생할 틈이 생기는 것이다.

폭력조직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국내 외에 개설하고, 자기들이 배팅한 방향으로 결과를 조작하기 위해 선수들에게 협박과 회유를 일삼는다. CPBL은 물론 대만 정부까지 나서서 야구계의 정화를 약속했지만, 효과는 일시적인 것만 있을 뿐 악순환이 되풀이되고만 있다. 불법 스포츠 도박의 돈 맛을 알아버린 악습세력에게는 대만 정부의 제재마저 큰 장벽이 아니다.

김영준 기자 gatzby@donga.com

1969년 일본프로야구 뒤흔든 '검은 안개' 사건

야쿠자·선수 결탁 최악의 승부조작 스캔들 이후로 한동안 퍼시픽리그 관중 외면 몰살

'검은 안개' 사건으로 불리는 일본프로야구 최고의 승부조작 스캔들은 1969년 발생했다. 무려 19명의 선수들이 범죄조직 야쿠자와 결탁해 프로야구와 다른 스포츠의 승부조작에 개입해 징계를 받았다. 6명이 영구제명, 3명이 사실상의 영구제명, 10명이 무기한~1개월의 출장정지 및 감봉을 당했다. 또 퍼시픽리그의 인기 구단인 니시테쓰는 주력 선수들의 대량 징계와 대중의 외면 속에 팀을 매각했다.

이 사건은 외국인선수의 제보로 드러났다. "우리 팀 동료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실책을 한다"는 제보를 받은 스포츠전문지 호치신문의 기자가 조사에 나서서 승부조작의 단서를 찾아냈다. 자매회사 요미우리 사회부와 특별팀을 만들어 취재한 결과 야쿠자가 프로야구 승부를

조작했고, 니시테쓰 투수 나가야쓰 마사유키가 주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보도 이후 나가야쓰는 자취를 감췄다. 이후 야쿠자가 구단을 협박해 나가야쓰의 도피자금을 풀어냈지만, 더 이상 견디지 못한 구단이 리그 사무국에 소속 선수의 영구제명을 요청했다.

1969년 11월 28일 영구퇴출이 결정된 나가야쓰는 혼자 죄를 뒤집어쓰기 싫었던지 이듬해 4월 중간지는 물론 방송사와 인터뷰하며 승부조작의 실체를 폭로했다. 니시테쓰 투수 이케나가 마사유키, 요다 요리노부, 마스다 이케오와 포수 무라카미 기미야스, 내야수 후나다 가즈히데, 모토이 미쓰오 등도 함께 승부조작에 가담했다고 털어놓았다.

이런 와중에 요미우리 코치 후지타 모토시가 중의원선거 때 야쿠자와 함께 선거운동에 참가하고, 자신의 사업체에 문제가 생기자 야쿠자를 동원한 것이 발각됐다. 의회에서 이 문제가 다뤄지는 등 정치 문제로 비화했다. 끝났던 부위는

여기저기서 터졌다. 오토바이 레이스에서 위법행위로 체포된 선수가 "프로야구선수들이 승부조작에 가담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주니치의 다나카 쓰토무, 다이요의 다카야마 이사가야 야쿠자와 함께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체포됐다. 불법 사례는 쉬지 않고 튀어나왔다. 주니치 에이스 오가와 겐타로도 승부조작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났다. 도에이의 다나카 미쓰구와 모리야스 도시야키도 범죄 사실이 공표됐다. 긴테쓰의 구단 직원과 한신의 내야수 기쓰라기 유타카도 잡혀 들어갔다. 전방위로 터진 프로야구선수들의 도덕 불감증에 비난 여론은 들끓었다.

이 스캔들로 퍼시픽리그는 한참 동안 관중의 외면을 받았다. 일본프로야구는 이후 선수들과 야쿠자의 접촉을 막기 위해 전지 행사 출신의 비밀구단직원들을 고용했다. 이들은 선수가 누구와 만나지는 은밀히 감시하고 있다. 평소 선수를 좋아하는 팬이나 후원자의 얼굴로 접근해 물량공세로 환심을 사는 스폰서는 결국 선수의 발목을 잡는 족쇄다. '검은 안개 사건'도 출발은 스폰서와의 사소한 시사 투는 술자리였다.

김성건 전문기자 marco@donga.com

불법 스포츠 도박 신고센터

경찰청 사이버안전국(cyberbureau.police.go.kr)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스포츠통합콜센터 1899-1119
(www.cleansports.or.kr)

한국야구위원회 공정센터 02-3460-4699
(www.koreabaseball.com)

대한축구협회 신문고 singo@kfa.or.kr(www.kfa.or.kr)
한국프로축구연맹 콜린센터 02-2002-0691
(www.kleague.com)

한국농구연맹 콜린바스켓센터 02-543-2288
(www.kbl.or.kr)

한국여자농구연맹 핫라인 080-077-0909
(www.wkbl.or.kr)

한국배구연맹 콜린센터 02-6393-5408
(www.kovo.co.kr)

편입 | 고충일 기자 ico@donga.com

불법스포츠도박 추방을 위한 연중 캠페인

SAC(Stop&Clean)!

Stop & Clean

불법스포츠도박 근절 및 부정경기 추방! 정정당당하고 건강한 스포츠·레저 문화 정착!

SAC(싸!) 불법스포츠도박 및 부정경기 '짝!' 추방합니다

진정한 스포츠·레저문화의 '짝!'을 타웁시다

김성건 전문기자 marco@donga.com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KSPPO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도박 추방 캠페인 동아일보사 CHANNEL dongA.com 후원 : KBO KFA 한국야구위원회 대한축구협회 한국프로축구연맹 한국농구연맹 한국배구연맹 한국여자농구연맹

안녕하세요, 탤런트 김형일입니다. 남성이 당당해지고, 부부가 행복해지고, 삶의 질이 비련다면? "뉴맨"이 확실한 패트를 드립니다, 강한남자 "뉴맨"입니다.

왜소하다! 빠르다! 힘이 약하다! 중간에 시든다?

수술없이 강한남자 뉴맨!!

사용당일 나타나는 막강 파워!

1. 힘이 약하다 ➔ 본인도 놀라는 막강 파워!
2. 잘 시든다 ➔ 끝까지 강력하게!
3. 작고 빠르다 ➔ 20~30% 더 커져서 오래도독!
4. 확대시술 후 약화된 강직도 ➔ 강하고 단단하게!

세상에 없는 반쯤제도! 효능의 자신감입니다.

출시10년! 반쯤률 4%대! 세상에 없는 반쯤제도를 만들게 된 원동력과 자신감입니다.

상담원과 통화 필요없는 반쯤 시스템

15일간 사용해보고 반쯤을 원하시면 반쯤(택배비 고객부담) 메모와 계좌번호, '뉴맨'을 보내주시면 도착 다음날 전액 환불해 드립니다. 구매보다 반쯤이 더 간단한 세상! '뉴맨'이 시작합니다.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십시오.

'뉴맨'의 광고를 접하면서 이런 작은 반쯤이? 에이 설마? 하는 의심이나 불신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10년 동안 유수의 스포츠신문(스포츠조선, 일간스포츠, 스포츠서울, 스포츠동아)에 꾸준히 광고하고 있다면 그리고 구매보다 더 간단한 반쯤제도라면 신뢰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DMM NAVER 에서 뉴맨 을 검색하세요 ※ 뉴맨 홈페이지에 2,000건 이상의 사용후기가 있습니다.

평상시 사이즈 뉴맨 호수

6.5이하	주문 제작
6.5cm	1호
6.75cm	2호
7cm	3호
7.5cm	4호
7.75cm	5호
8cm	6호
8.25cm	7호
8.5cm	8호
8.75cm	9호
9cm	10호
9.25cm	11호
9.5cm	12호
9.75cm	13호
10cm	14호
10.25cm	15호
10.5cm	16호
10.75cm	17호
11cm	18호
11.25cm	19호
11.5cm	20호
11.75cm	21호
12cm	22호
12.25cm	23호
12.5cm	24호
12.75cm	25호
13cm	26호
13.25cm	27호
13.5cm	28호
13.75cm	29호
14cm	30호
14.25cm	31호
14.5cm	32호
14.75cm	33호
15cm	34호
15.25cm	35호
15.5cm	36호
15.75cm	37호
16cm	38호
16이상	주문 제작

중국지사 T. 0433-286-5031 · 일본동경지사 T. 03-6233-8994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www.newm.kr 15일 사용후 효과 없을시 100% 반쯤·환불 T.1588-3346, 010-8020-3346 서울시 서초구 바우타운920 (우편동) (주)케이앤제이스포츠 통신팀매 허기 서초 0701호